

민주 공천 '잡음'... '비례' 줄어드나

당내 '공천 갈등' 갈수록 확산
비례대표 지지율에 큰 영향
갈등 극복하고 원팀 정신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 선거판'에 변화가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결과에 반발할 예비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면서 지역 유권자들이 본선에서의 '선택지'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간 고소·고발 등 비방전이 극에 달한데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잇단 낙마로 인해 민주당 본선 조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남에서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지역구는 아닐지라도 비례대표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특히 향후 광주·전남지역의 추가 경선지역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고전이 예상되고,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높은 총선 득표율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초기에 '공천 파동'을 극복하고 '원팀'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호남 득표율에 그칠 수도 있고, 이는 수도권 표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 동남갑과 동남을 선거구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성환 전 동구정장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이들은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렸지만,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되자 반발해왔다.

노 전 장관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불공정한 공천 심사와 최악으로 치닫는 이재명 대표

의 사당화 전략의 뒷받침이 못한 채 경선에서 배제됐다"며 "민주당 후보로서의 발걸음은 멈추지만, 민주당을 '김대중의, 노무현의, 문재인'의 민주당으로 복원시키는 발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도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동안 공개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계속한 저를 제외한 것은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이는 밀실 공천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바로잡아 달라"면서 "무소속 출마 예정인 김성환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들의 무소속 출마로 동남갑·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을 기반으로 했던 무소속 후

보와의 분선 경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높은 지지율과 지역 기반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선 광주지역 3곳의 지역구 경선에서 조직력을 갖춘 현역 의원이 모두 낙마한 점도 민주당의 이번 총선 호남 득표율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현역 교체'로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를 든 지역 표심이 본선에서 민주당 지지를 지속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본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과 컷오프 예비후보 등을 끌어안지 못한다면, 호남 득표율뿐 아니라 경합지역인

수도권 열세의 발미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원팀 정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하루 빨리 당 지도부가 당내 '공천 갈등'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호남에서 지지율 20%에 도전하는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에 정당 지지도를 뺏길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졌는데 당 차원에서 서둘러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면서 "유권자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지지율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대 증원규모 2천명 계속 유지하겠다"
대통령실, 방침 확고

대통령실은 25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000명을 의사 증과 조출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2000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증원 규모는 3000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증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한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000명에서 최대 3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된 것들이 7~8개 정도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청년 정책, 조직화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을 위한 플랫폼 활용 등 주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민생 토론회에 대한 중간 점검 회의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3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점검한 이후에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직결된 전국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 서구갑 송갑석-조인철 경선·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광주 서구갑과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를 비롯한, 21개 선거구에 대해 7차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총 21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수공천 지역은 17곳, 경선 지역은 4곳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서구갑과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2곳이 포함됐다.

광주 서구갑은 현역인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인 경선으로 맞붙는다. 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박해자 전 국회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앞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 의원이 있는 서구갑 지역구는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인제

광주 서구갑



송갑석

조인철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원내 지도부인 이개호(3선) 정책위원회 의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번까지 3연속 단수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공관위는 또 당 지도부인 서영교(서울 중랑갑)·정청래(서울 마포을) 최고위원을 비롯한 유동수(인천 계양갑)·김승원(경기 수원갑)·백해련(경기 수원을)·김영진(경기 수원병)·김태년(경기 성남 수정)·강득구(경기 안양만안)·민병덕(경기 안양 동안갑)·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한준호(경기 고양을)·김용민(경기 남양주병)·문정복(경기 시흥갑)·권철승(경기 화성병)·김한규(제주을)·위성곤(제주 서귀포) 등 현역 의원 17명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일부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선정돼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 인사들과 공천권을 놓고 경선에서 맞붙게 된다.

광주 서구갑을 포함해 대전 대덕에서 박정현 최고위원과 박영순 의원이 2인 경선으로 맞붙는다. 경기 고양정에서는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충북 청주 흥덕에서는 도중환 의원과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의료대란 6일째...진료·수술 '한계상황' ▶6면

KIA 스프링 캠프 - 윤도현 연습경기 흥런포 ▶18면



동내책방 - 담양 '수북 수북'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 (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Mercedes-Benz Certified